

News

KB금융, 시총 13위 오르며 '금융 대장주' 탈환

매일일보

KB금융지주, 카카오뱅크 시총 뛰어넘으며 5개월여만에 금융대장주 자리 재탈환... 주가 3.81%올라 6만원에 마감... 52주 신고가도 새로 써... 작년 4조원대 역대 최대 순이익과 더불어 금리 인상기 도래함에 따라 은행 수익성 개선되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요... 카카오뱅크는 전일비 3.42% 하락한 49,350원 기록

집값 하락 조짐에 주담대 금리는 6% 성금...불안한 영끌족들

뉴스1

4대 시중은행의 신규코픽스 기준 주담대 금리 연 3.63~5.07%까지 올라... 은행채 5년물에 연동된 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5.55%까지 상승... 금리는 당분간 계속 오를 전망...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은행 가계대출 차주 중 75.7%가 변동금리 차주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노출... 집값 상승세도 주춤 차주들 불안감 증가

270兆 퇴직연금 ETF 시장 잡아라...기업은행도 참전

한국경제

IBK기업은행, 5대 시중은행에 이어 퇴직연금 ETF 시장에 발들어... 개인 모바일뱅킹 앱 내 퇴직연금 메뉴에 ETF 카테고리 만들고 서비스 제공예정... 서비스 대상은 DC형과 IRP 가입 고객...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미 서비스 출시했거나 계획 중... 은행과 증권사 두 업권간 경쟁... 점차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어...

"기본급 300% 쏜다" 실적 대박난 은행들 성과급 잔치

파이낸셜뉴스

4대 시중은행, 작년 호실적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높은 경영성과급 지급... 신한, 300%에 마이신한포인트 100만원 가량 지급... KB와 하나, 기본급 300%, 우리, 기본급의 200%로 결정...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순이익은 총 9조 5,079억원에 달해... 다만 부정적인 시선들에 조심스러운 반응

작년 9월 기준 보험사 지급역력비율 하락, 금리상승과 증시부진 영향

비즈니스포스트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RBC비율, 6월 말보다 6.4%p 하락한 254.5%로 나타나... 금리 상승과 주가 하락으로 가용자본 감소했으나, 요구자본 6천억 원 증가에 그쳤기 때문... 보험사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인 곳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6월 말보다 77.3% 하락... MG손해보험, 100.9%로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낮은 RBC비율

토스, 위촉직 보험설계사 재모집...GA업계와 충돌 '일촉즉발'

이코노믹리뷰

토스인슈어런스, 11일부터 위촉직 대면 보험설계사 모집 시작... 보험업계에서는 토스의 정규직 보험설계사 전략이 한계 봉착으로 다시 위촉직 모집한 것으로 해석... GA업계 일각에서는 불만... 과거 위촉직 설계사 유출할 생각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갑자기 대면 영업 설계사 모집에 나서 문제제기... 사측은 대면 채널 확대 조치라는 설명

"실속 있는 대어만 골라 담았다"...JP모건, 국내 대형사 IPO 실적 제쳐

조선비즈

JP모건, 서울지점 공모금액 작년 기준 4조 3,729억원으로 미래에셋증권(8조 9,136억원)에 이력 2위... 단 3개 기업 IPO만으로 성적 거둬... SK아이이테크놀로지, HK이노엔, 카카오페이의 상장 업무만 맡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도 카카오뱅크, 현대중공업 상장 주관만 맡고 4위 기록... 일각에서는 데이터 문제제기

토스 'MZ 공략', 카카오페이 '전 연령 확장'...갈리는 신생 증권사 전략

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 가입자 수 총 405만 9,000명으로 집계... 6월 말 대비 15.7% 증가... 특히 2030 가입자 중심 공략... 꾸준한 60% 증반 비율 유지 중... 카카오페이증권, 작년 3·4분기 말 기준 가입자 518만 명으로 집계... 지난해 3차례 유상증자 통해 확보한 실탄으로 MTS구축 돌입도 예정... 연령별 가입자 수 편차 줄이는 전략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